

중국 및 한국의 기로(棄老) 습속에 관한 고찰: 기사요(寄死窯)와 고려장(高麗葬)을 중심으로

Folkways of Abandoning the Aged in Ancient China and Korea: Focusing on 'Ji-Si-Yao' and 'Go-Ryo-Jang'

段曉紅*

廣西民族大學 民族學與社會學學院

Xiaohong Duan

College of Ethnology and Sociology, Guangxi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초록)

고대사회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는 여러 문화권에 존재했던 풍습이었다. 중국의 기사요(寄死窯)나 한국의 고려장(高麗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는 고려장 풍습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기사요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실증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기사요는 노인을 비자연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풍습으로 인간 세상사의 하나였으며 또 일종의 장례 문화였다. 이와 같은 고대의 풍습을 토대로 근래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의 노인 학대와 같은 생의 후반기 삶의 질 저하를 시급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려장, 기사요, 노인 학대, 장묘 문화

(Abstract)

The immoral deed of discarding older adults in ancient society was a kind of customs that were existed in many cultures. The classical examples of the deed were 'Ji-Si-Yao' in China and 'Go-Ryo-Jang' in Korea. Most of Korean scholars have denied the existence of the 'Go-Ryo-Jang' in Korea, but the existence of the 'Ji-Si-Yao' has been proven through a number of field studies in China. According to the studies, the

* 교신저자, 郵 530006 中國 廣西南寧市 大學東路 188號 廣西民族大學 民族學與社會學學院 段曉紅 博士 (Post-doctorate) (e-mail: duanyih0216@naver.com)

‘Ji-Si-Yao’ was a custom of making the aged dead unnaturally, one of ordinary matters, and a kind of burial services. Ruminating the ancient custom, people in the era of population ageing should be concerned about low quality of life for contemporary older adults.

Key words : Ji-Si-Yao, Go-Ryo-Jang, Elder abuse, Burial services

노인을 버리는 행위(기로, 棄老)는 노인을 비자연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행위 풍습으로 인간 세상사의 하나였으며, 일종의 장례 문화였다. 역사 기록 및 인류학이나 인구학 연구자 등이 밝혀낸 유럽이나 북미, 남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풍습 연구에 의하면, 기로는 인류 사회 초기에 존재한 풍습이었다(魏彦彦, 2010, pp. 31-33). 중국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기로 습속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지만, 한국에는 중국이나 일본과 역사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기로 풍습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은 편이다. 중국의 기로 풍습에 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기사요(寄死窩, 죽음을 맡기는 가마와 같은 시설),’ ‘유루묘(油簍墓, 기름을 담은 바구니 모양의 무덤),’ ‘구자분(丘子墳)’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일본의 ‘기로산(棄老山)’에 대한 연구들이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로 풍습은 ‘고려장(高麗葬)’이라고 부르며, 한국 학자들도 고려장 관련 연구를 시도해왔다. 본고는 기로 풍습에 관한 설화와 고증 연구를 정리하면서 중국과 한국 학자들이 자국 혹은 지역의 기로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한 연구들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탐색하는 것이다.¹⁾

1) 북한에 있는 관련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본

I. 중국의 기로(棄老) 전설

투서기(門鼠記)에 의하면, 고대 미나라(糜國)에서는 60세가 넘는 노인을 ‘기사요(寄死窩)’에 버려두었다가 굶거나 얼어서 죽은 다음에 장례를 하는 풍속이 있었다. 양삼(楊叁)이라는 한 농부가 나라 풍습을 어기고 몰래 늙은 아버지를 집에 숨겨서 모시고 있었다. 어느 날 미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황소만큼 큰 쥐(犀鼠) 한 마리를 받았는데, 나라에 이 괴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온 나라가 당황, 공포, 불안한 분위기에 잠겨 버렸다. 그 농부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달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크기가 6.75kg 정도인 고양이로 그 괴물을 퇴치시킬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농부는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대로 괴물을 퇴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왕은 노인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고, 노인을 ‘기사요’에 보내서 죽이는 풍속을 폐지시켰다. 이러한 전설은 당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유루묘’나 ‘구자분’ 등의 기로 풍습과 관련된 전설들도 모두 투서기(門鼠記)에 적힌 내용과 유사하다(劉守華, 2003; 張良舉, 2006, pp. 201-202; 時鑒, 1996,

고의 참고 자료는 주로 중국과 한국의 관련 학술 사이트에서 수집한 것임.

p. 797).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중국에는 이와 비슷한 전설이 15개 성(省), 20개 민족에 대략 70여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劉守華, 2012, pp. 308-310).

II. 한국의 기로(棄老) 전설

고려장경(高麗藏經)에 다음과 같은 ‘기로국(棄老國)’ 관련 서술이 있다. 옛날에 ‘기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노인을 버리는 법이 있었다. 한 대신이 국법을 어기고 늙은 아버지를 동굴에 숨겨 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천제(天帝)가 임금에게 뱀 두 마리를 보내면서 암컷과 수컷을 식별하라는 문제를 보내왔다. 문제를 잘 풀면 나라가 태평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7일 이내에 나라를 멸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이 많았다. 그 대신이 동굴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어렵지 않다. 가늘고 연한 물건을 뱀 몸에 놓아보면 알 수 있다. 몸이 흔들거리는 건 수컷이고, 움직이지 않은 건 암컷이다.’라고 가르쳐주었다. 대신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임금께 전달해서 암수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었고, 나라의 위기가 잘 해결되었다. 그러나 천제는 임금에게 또 다른 문제를 냈는데, 코끼리의 무게를 재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대신의 아버지는 ‘큰 배를 만들어 이 코끼리를 배에 실었을 때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를 표시해두고, 나중에 돌들을 채워 그 표시한 곳까지 잠기도록 해보라. 돌들의 무게가 바로 코끼리의 무게다.’고 가르쳐주었다. 그 후 천제

는 임금에게 박달나무 토막 하나를 보내어 나무의 위와 아래를 구별하라고 했다. 대신의 아버지는 서슴없이 물에 띄워보면 뿌리 쪽이 더 잠기고 위쪽은 물위로 뜰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천제는 겉모습이 똑같은 암말 두 필을 보내어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라고 했다. 대신은 아버지에게 물으니 말에게 풀을 줘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어미는 반드시 새끼에게 풀을 밀어주어 먹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문제들이 모두 잘 풀리게 되었다. 임금과 그의 나라는 무사히 위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천제의 보호까지 받게 되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고 대신에게 큰 공덕을 세웠으니 상을 내려주겠다고 했더니, 대신이 기뻐하지 않았고 동굴에 숨겨 둔 아버지에게 물어서 그 지혜를 얻어서 답한 것을 모두 말했다. 임금이 마침내 어른의 지혜와 공로를 알게 되었고, 기로의 법령을 폐지시켰다. 이는 ‘문제 해결’ 형태의 설화에 속한다(김민한, 1999). 중국 학자들(예, 劉守華, 2003, 2012)이나 한국학자들(예, 김민한, 1999)의 고증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형의 기로 설화는 모두 한자로 번역된 불경 ‘잡보장경(雜寶藏經)’ 권1 ‘기로국연(棄老國緣)’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또 다른 설화로 옛날에 사람이 70세가 되면 산속에 내버려졌다는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마침 70세가 되었으므로 풍습대로 지계에 지고 산 속에 내다 버리려고 산속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어서 지계와 함께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 때 함께 따라왔던 그의 아들이 버려진 지계를 다시 가져

가려고 등에 짊어졌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 지계를 가지고 가지 마라!”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어 70세가 되면, 이 지계로 아버지를 버릴 걱정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효도를 다하였다. 이로부터 노인을 버리는 악습이 사라졌다는 줄거리이다. 김민한(1999)과 조유향(2011) 등 학자들은 한반도의 ‘지계’ 형태의 기로 설화는 원국의 아버지가 늙은 할아버지를 지계에 지고 산속에 버리고 돌아오다가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뉘우쳤다는 중국의 “효자전”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또 일본의 ‘今昔物語’ 제5권의 기로국 전설도 한국의 고려장 설화와 매우 유사하다(김민한, 1999). 그렇기 때문인지 기로 습속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역사 기록이나 실물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은 본국의 기록 습속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지니기도 한다.

III. 기로 습속의 실증 고찰 및 토론

1. 중국의 ‘기사요’

2001년 5월 유수화(刘守华, 華中師範大學文學院) 교수는 한 자동차공업대학(湖北성十堰시 소재) 선생의 제보에 의해 무당산(武当山) 지역에 널리 퍼진 ‘기사요(寄死窯)’에 대해 고찰했다. 나중에 여러 매체(湖北日報, 長

江日報, 北京青年報 등)에서 이를 더 심도 있게 보도했을 때 대중들은 ‘기사요’ 현상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으며, 민속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현지 사람들은 ‘기사요’를 ‘자사요(自死窯)’ 등 여러 명칭(己死窯, 參洞, 待死窯, 借死窯, 老人洞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과 산시(陝西)성에 위치한 강(한수, 漢水) 중류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후베이성의 북서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들은 대부분 후베이성의 원(鄖)현, 원시(鄖西)현 남쪽 한수(漢水)의 양쪽 기슭, 단장커우(丹江口)시 지역(習家店, 官山, 十堰의 夏家店, 白浪), 주시(竹溪)현 지역(龍壩, 泉溪), 허난(河南)의 단장(丹江)유역의 시촨(淅川), 산시(陝西)성 경내의 안강(安康) 등 한수(漢水)지류 근처의 산악에 분포되어 있다(潘世東, 2004, p. 27; <Figure 1> 및 <Figure 2> 참조). 발견된 기사요의 수량이 적지 않은 편인데, 단장커우(丹江口)의 관산(官山) 경내에만 해도 40여 곳이며, 원양(鄖陽)의 청취(青曲) 경내의 리자완(李家灣)만 해도 34곳이다(武当山叢書編委會, 2016, p.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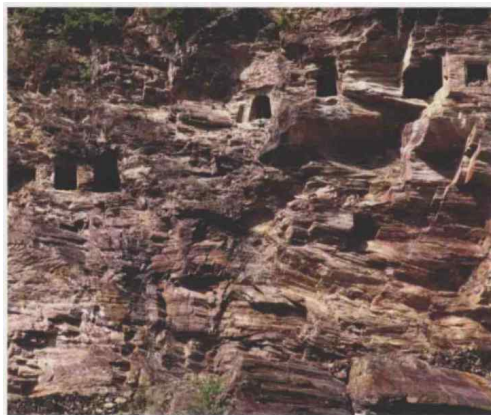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각 지역의 동굴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높이와 넓이가 0.8-1.5m 그리고 길이는 2-3m 정도이다. 한 연구자(刘守华)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동굴은 아주 반듯하고 세밀하게 파여 있었다. 높이는 약 80cm, 길이는 약 2미터였는데, 바닥과 벽은 아주 평평하고 딱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였다. 석벽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는 등잔을 놓은

段曉紅 / 중국 및 한국의 기로(棄老) 습속에 관한 고찰: 기사요(寄死窰)와 고려장(高麗葬)을 중심으로



<Figure 1> 기사요(寄死窰)가 분포되어 있는 산악 및 외관

(출처: <https://baike.baidu.com/item/%E5%AF%84%E6%AD%BB%E7%AA%91/2389177?fr=aladdin>)



<Figure 2> 한수(漢水)유역 내(十堰)의 ‘기사요(寄死窰)’는 대부분 높은 암벽에 있으며 사각형 모양임 (武当山叢書編委會, 2014, p. 157).

곳이라고 한다. 구멍 입구 근처의 석벽에 오목하고 길게 팬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원래 나무로 된 문이나 울타리를 설치했던 모양이다. 동굴 안은 비어 있고 유물이 하나도 없었다. 동굴 크기는 성별에 따라 다른데, 여성용 동굴은 상대적으로 작고 깊지 않다(劉守華, 2003).

기사요의 용도에 대해 현지에 전해진 이야

기에 따르면, 노인이 만 60세가 될 때 당시 풍속에 따라 후손들은 노인을 그곳으로 보내야 하며, 그 후 3일 동안 음식을 전달해준다. 노인을 기사요로 보낼 때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두고서 곧바로 동굴의 공기가 드나드는 곳을 막아버린다는 설명도 있다. 노인이 사망한 후에는 시체를 찾아 다른 데에 묻기 때문에 동굴 안에 유골이나 유물이 없다고 한다. 다른 장소로 옮겨서 묻는 것 때문에 이 동굴을 ‘기사요(寄死窰)’라고 부르고 있다.

노인을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관련된 습속이나 전설은 중국에 불교가 전파된 것과 연관된다. 이는 유수화 교수가 언급했던 불교 고사 ‘기로국연(棄老國緣)’ 이외에 둔황(敦煌)석굴의 벽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유림(榆林) 석굴 당나라 중기 제25번 동굴의 북쪽 벽에 ‘미륵경변(彌勒經變)’ 가운데 ‘노인입묘도(老人入墓圖)’가 여러 폭 있다 (<Figure 3> 참조). 그 중 한 그림은 동그란 무덤 마루에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있는 노인이 그려졌다. 벽화 속의 노인은 복두(幞頭, 옛



<Figure 3> 榆林窟第25窟《弥勒经变》“老人入墓图”(胡同慶·王義芝, 2014, p. 150)

날 남성의 두건 일종)를 쓰고 있고, 양쪽 귀 밑머리가 희끗하며,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편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 어린이는 그의 앞에 엎드려서 작별인사를 하고 있으며, 옆에는 세 부녀자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서 빨간 옷을 입은 한 남성도 울고 있다. 무덤 옆에서 하인들이 물건을 들고 서 있다. 무덤 안은 아주 넓고, 무덤 안팎에 송백(松柏) 나무와 파초(芭蕉)가 둘러싸여 있다. 다른 ‘노인입모도’들의 내용도 유사하다. 노인들이 모두 두루마기나 코트를 걸치고 있고, 경전을 안고 있다. 그들은 혼자서 또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무덤으로 향해 간다. 가족들은 음식이나 다른 용품을 머리에 이거나 안고 있는데, 이는 모두 노인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혼자서 무덤에서 살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 번역서(“人命將終, 自然行詣塚間而死.” 弥勒下生成仏經, 鳩摩羅什 译)에 의하면, 사람은 죽기 전에 이 무덤을 자연스럽게 무덤을 찾아

간다고 한다(胡同慶·王義芝, 2014, pp. 150-151).

‘기사요’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또 나이가 들어 60세가 되면 기사요로 보낸다는 민간 설화를 근거로 할 때 그러한 일이 아마도 당시 그 지역에 존재했던 오래된 습속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적지 않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민속학이나 사학, 고고학 및 철학 연구자들은 ‘기사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판단하고 있다.

첫째, 용도를 보면 ‘기사요’는 사망의 장소이지 매장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동굴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통해 기사요가 노인들을 일찍 사망하게 하는 장소이지 매장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이 죽은 후에 그들의 시체를 꺼내어 다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이러한 동굴을 기사(寄死)나 대사(待死), 자사(自死)의 동굴로 불려왔다. 부모가 노인이 되면 자식들이 그곳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노인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가든지 노인이 동굴로 가야한다는 습속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굴의 유적지와 관련된 민간 전설에 의하면, 기사요 풍습이 발생하고 존재한 시기는 매우 오래전, 적어도 춘추(春秋)시대 이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사요가 많이 분포한 한강(漢江, 고대에 “한수”라고 함.) 지역은 구석기시대의 인류거주지였으며 신석기시대의 문화유적지였다. 기사요가 발견된 곳들은 양소(仰韶)문화, 굴가령(屈家嶺)문화, 용산(龍山)문화, 석가하(石家河)문화가 서로 중첩된 지역이다. 민간전설에 따르면 기사요 현상

은 고대의 미나라(麋國)와 웅나라(上庸古國)에서 발생했다. ‘좌전(左傳)’이나 ‘사기(史記),’ ‘태평어람(太平禦覽)’ 등의 기록이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은상(殷商)왕조, 서주(西周)시대부터 춘추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수(漢水) 유역에 여러 나라들(鄆鄆이나 麋, 楚, 庸, 彭 등)과 여러 부족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기사요 습속은 춘추시대 이전에 존재했다고 추측된다. 대부분 기로습속에 관련된 전설이 60이나 70세를 넘은 노인을 기사요로 보낸다는 점을 강조하는 걸 보면, 그 때 당시에 갑자기년(甲子紀年)법이 이미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갑자기년법을 발명하는 사람이 4·5천 년 전 상고시기(上古時期)의 대요씨(大撓氏)인 것으로 전해 내려졌다. 은상(殷商) 시대 제왕의 이름이 천기(天己), 외병(外丙), 중임(仲壬) 등으로 지어진 것을 보면, 갑자기년법은 은상 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사요 습속은 그보다 더 오래된 상고시기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기사요 현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기사요 풍습이 고대 사회의 엄하고 모진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산물이었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노약자가 제일 먼저 도태당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노약자들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학살과 희생의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야만스러운 부족들이 적군의 포로를 잡아먹는 습속이나 고대사회에서 전쟁 도중 병사들이 식량이 부족할 때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 등으로 기사요 풍습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나라 말기에 조조

와 유비의 대군이 식량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사람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따라서 기사요 현상은 인류사회가 발달하는 초기에 생산성이 매우 낮았던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생존 경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 연구자(武漢대학의 宮哲兵교수)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청나라 시대에는 60세가 지난 노인을 기사요나 땅굴에 보내어 죽으면 매장하라는 조령의 명령이 있었으며, 심지어 중화민국의 초기까지 남아선호사상을 고수한 자들의 일부는 여자아이를 기사요와 같은 곳에 놓아두고 죽이기도 했다는 것이다(宮哲兵, 2007).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자(劉守華)에게 현지인들은 당나라 때까지 기사요 풍습이 계속 존재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이러한 야만스러운 풍습의 존재와 폐지는 현지 사회, 경제, 문화의 수준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劉守華, 2003).

넷째, 기사요 풍습이 시체를 임야에 버려 금수에게 먹이는 야장(野葬) 풍습의 유물 또는 불교에서 전래된 산물에 대한 추론이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토장(土葬)이나 화장(火葬), 수장(水葬), 시체를 버려 새가 파먹게 하는 천장(天葬), 시체를 넣은 관을 절벽 중턱에 있는 동굴 속이나 틈에 두거나 말뚝을 박아 걸어놓는 현장(懸葬) 등의 장례문화의 기록이 있었지만, 기사요처럼 사람을 굶긴 후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풍습 기록은 없었다. 그러한 연유로 기사요가 당나라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언급된 고대 인도도의 ‘노인을 들에 버린다.’는 야장 풍습과 비슷한 장례 풍습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劉守華, 2003). 그리고 중국 사회의 전

체적인 상황을 보면, 주나라 시대에는 경로습속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사요 같이 노인을 유기하는 습속이 확실히 존재했다면 지역 간의 경제 문화적 발전 불균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시 한나라 시절의 선녀와 연애한 동영(董永)이라는 사람의 고향이나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인 양산백(梁山伯)과 축영대(祝英台)의 고향 등처럼 전설에 의해 만들어진 유적지의 사례로 보면, 기사요도 인도 불경고사 ‘기로국연’이 중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불경고사가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에서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한 연구자(廈門華僑大學 黃紹堅박사)가 기로풍습 현지 조사할 때 후베이(湖北)성 서북쪽의 ‘기사요’ 이외에 산둥(膠東반도)의 ‘모자분(模子墳)’, 산시(山西)성 시양(昔陽)현의 산 채로 매장하는 ‘생장모(生藏墓)’, 후베이(湖北)성 홍안(紅安)현의 한 마을(何田)의 ‘고곽(古槨)’ 등 기로풍습의 실증을 발견했다(黃紹堅·望南·謝罡, 2009). 따라서 기사요가 불경고사에 의해 전해진 산물로 추정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다.

한 연구자는 기사요 습속이 야만적이거나 낙후한 인습이나 불효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깊은 연원이 있고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등의 한수(漢水) 유역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관점을 주장했다(潘世東, 2004, pp. 29-31). 첫째, 그에 의하면, 코끼리나 야생말이 나이가 들면 스스로 사망을 맞이하기 위해 소리 없이 무리를 떠나는 것처럼 인간도 수 천 년의 진화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발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따라서

사람도 슬픔이나 고통, 외로움이나 절망을 느끼지 않고 사망에 임박할 때 이를 자연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곧 이러한 습속은 생존의 의무를 완성한 후의 죽음의 맞이하는 일종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李韶六, 1997). 그러나 필자는 인간의 근친인 오랑우탄이나 원숭이도 이와 비슷한 본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한수 유역의 무당산(武當山)은 중국 도교문화가 발흥하고 전파된 중심지역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고대 한수 유역의 거주민들이 60세에 기사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칙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무당산 지역의 장례문화연구에 의하면, 도교가 추구하는 신성이 되는 것(羽化登仙)은 곧 불로장생이며, 생사문제는 도교의 윤리 체계에서 한 핵심이다. 도교의 일체 종교 활동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망을 초월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전개한 것이다. 도교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라고 권유한다. 도교 신도들은 힘든 수행 생활을 보내는 동시에 다양한 불로장생의 기술과 생사를 초월하는 기술을 연마하는데, 도교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이다(程群, 2014). 이를 토대로 기사요의 행위 습속은 도교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대 로마 “삼림(森林)의 왕” 전설에 의하면, 기사요 풍습은 세속적이지만 숭고한 죽음에 대한 관념이다(Frazier, 2001). 관례적으

로 삼림지대를 다스리는 여신 다이아나(Diana)의 신묘를 지키는 제사(祭司)는 도망쳐 나왔던 노예가 담당해왔다. 그 노예는 제사가 되어 벌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림의 왕이라는 직함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밤낮없이 신묘 근처에 있는 높고 무성한 성스러운 나무를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다른 노예가 이 나무의 황금 가지(golden bough)를 꺾어버릴 경우 그 제사와 결투할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결투 과정에서 이 노예가 제사를 죽이면 그는 새로운 제사와 삼림의 왕이 될 것이다. Frazer(2001)는 새로운 제사가 교감무술(交感巫術)로 황금 가지를 꺾고 전임 제사이자 삼림의 왕을 왜 죽여야 했는지의 원인을 설명했는데, 원시인들이 전임 제사와의 오래된 접촉 과정에서 그 황금 가지에 전임 제사이자 삼림의 왕의 영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꺾으면 전임제사의 영혼을 얻게 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고대에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은 아주 중요한 책임을 담당한다. 왕의 성스러운 영혼과 마력이 나라의 모든 것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운명, 생과 사,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왕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동식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졌다. 왕의 영혼과 마력을 보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왕에게 쇠약해진 징조가 나타날 때 왕을 죽이는 것이다. 왕의 몸이 아직 건강한 상태에서 그의 영혼을 다른 건강한 몸체에 옮겨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살해당한 삼림의 왕처럼 인생의 사명이 끝나고 신체가 쇠약해질 때 후손들과 사회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념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 관념에 의하면, 60세가 되어 기사요에 들어간 한수 유역의 사람들은 후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생존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궁극적 가치 관념에서 보면, 이 행위의 목적은 후세와 민족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였고, 이는 개인의 희생의식과 종족단체의식을 반영하며 미래를 중요시하는 숭고한 것이다.

2. 한국의 고려장

전설 이외에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고증할 수 있는 ‘고려장’ 관련 역사기록이나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다수 한국 학자들은 소위 한반도의 기로 풍습인 고려장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고려장은 이흥직(1963)의 ‘국사대사전’에 고구려 때 늙어서 쇠약한 자를 산 채로 묘실에 옮겨두었다가 사망한 뒤에 그곳에서 장사지내는 풍습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문헌 출처는 ‘한국사 고대 편’라고 적혀 있다. 김민한(1999)은 저자나 편자를 분명히 하지 않은 이와 같은 인용 방법에 대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며 또 너무 무책임한 인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교과서에 이러한 전설을 실어 홍보하는 것이 민족의 자긍심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이 전설에 관한 해석이나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이 고려장 풍습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고시대로부터 한민족은 예의를 숭상하며 잘 지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여러 서적(山海經, 論語, 神異

經, 後漢書, 三國志·魏志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논어(子罕 篇)에 공자가 한반도를 ‘군자지국’으로 칭하는 기록이 있는데, 공자는 당시의 사회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가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 산해경(山海經) 9권에도 한반도 백성들이 예의가 바르고 서로 싸우지도 않으며 인성이 바르며 강하고 용감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후한서(後漢書)에도 ‘부여(夫餘) 사람들은 체구가 크고 용감하며, 조심스럽고 너그러우며,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일이 없으며, 밤낮없이 모여서 노래 부르기를 즐겨한다’고 적혀 있다. 상고시대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효도는 한반도 사람들의 고유 덕목이었다. 또 삼국사기 48권(列傳·聖覺 傳)에 어머니가 노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식이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대접하여 어머니를 살려서 왕의 포상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이 대립하는 시기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모두 유교와 불교를 나라를 세우는 근본 사상으로 삼았는데, ‘모든 선행 중 효가 으뜸’이라고 여기는 유교와 불교의 자비 사상이 한민족의 효 문화 전통을 고수하게 했다. 역대 왕조의 통치자들은 효도를 백성들의 교화에 중요한 내용으로 국법에 명시하기도 했는데, 효도를 하지 않으면 국법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효가 반역죄와 같은 죄로 여겨 엄벌했는데(김민한, 1999), ‘고려사’ 제84권 형법에 적힌 주변의 존경할 만한 친척이나 어르신, 외조부모, 양가 부모에게 불효했을 때 상처를 내지 않아도 참수한다는 조항을 보면 실제 고려장이 존

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둘째, 고려장 관련 기로전설은 일제 강점기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한 음모론이나 불교와 유교의 전파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반도 역사에서 병자를 깊은 산속에 유기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당시 버림을 당한 자들은 불치의 전염질환 환자들이었다.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드러난 시점은 일제 강점기였고, 이는 일본 침략자들이 조선의 문화를 훼손하기 위해 날조한 구설이었다는 것이다. 침략자들이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유물을 도굴한 비행을 감추고, 조선인들이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발심을 무마하고 회유하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는 구설을 조작한 것이었다. 그 밖에 고려장이라는 기로전설이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원래 교육적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현재까지 교과서나 동화서적, 문학 및 영화, 드라마 작품 등에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용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와전되면서 마치 이러한 풍습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Xu & Soh, 2007).

중국학계가 기사요 관련 기로전설에 대해 현장 답사 등의 고증을 실시하는 반면, 한국학계는 한반도의 고려장 관련 연구를 대부분 문헌의 고증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편이다. 대다수 한국 학자들은 관련된 실물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장 관련 기로전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고려장(高麗葬)이란 단어가 ‘고려장경(高麗藏經)’의 와전이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 사람들이 ‘고려장경’의 기로 관련 옛이야기를 말로 전하는 과정에서 왜곡되었다는 주장인데, 한국어에서 ‘고려장(高麗葬)’과 ‘고려장(高麗藏)’의 발음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학자들을 문헌 고증 시 대부분 한반도가 상고시대부터 예의를 중요시했으며 개화된 민족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왕조가 불교와 유교를 근간으로 다스려져 왔음을 강조하면서 노인을 버리는 풍습이 있었을 수 없다고 부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 학자들의 논증방법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서적에 기록이 없었음을 토대로 기로 풍습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 간의 사회 발전 수준 차이가 있어서 옛 서적의 기록은 그 당시의 사회문명 수준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 군자의 나라, 예의가 있는 나라라는 표현은 당시 사회의 주류 풍습과 풍조를 반영했을 뿐이며, 인간의 야만성이나 잔인성은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성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周)나라 시절부터 경로 및 노인의 사망 시 후하게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고, 춘추전국시대에는 제후들이 패권을 서로 다툰 과정에서 노인의 지혜와 책략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역대 각 왕조도 민중을 계몽하고 민심을 교화시킬 때도 효행교육을 많이 강조해 왔지만, 이러한 강조만으로 효 문화가 전체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효행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효행이 몸과 마음에 내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유교의 발원지

인 노(魯)나라에서도 ‘유루묘(油簋墓)’나 ‘구자분(丘子墳)’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군자지국”의 사람들도 모두 효심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서경(書經)을 맹신하는 것은 서경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

한중 학계가 고조선 건국에 대한 기자조선설의 논쟁이 있지만, 기자(箕子)가 중국문화를 한반도에 전하면서 당시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중국의 논어(論語)나 상서(尚書), 사기(史記), 후한서(後漢書) 등 그리고 한반도의 삼국유사(三國遺事),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에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학자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중국의 각종 사서 및 본국의 삼국사기, 고려사, 동국통감(東國通鑑), 동사회강(東史會綱) 등의 사서를 참고하여 동사강목(東史綱目)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는 동사강목에서 기자가 나라를 세우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는데, 기자가 한반도에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령을 제정하고, 중국 황하강 중류지역의 문화를 전했다. 그리고 기자조선을 군자의 나라, 예의의 나라라고 했는데, 공자는 그 나라를 동경하기도 했다. 기자조선의 통치범위에 대해 趙淩煙(2016)은 ‘기자조선의 고고학 탐색’에서 역사 문헌과 동북아계 청동문화 중 은나라 시대 유물을 지닌 여러 기물의 분포 지역 변화를 통해 기자조선이 춘추시대로부터 전국시대 중기까지 여전히 요서(遼西)지방에 존재했고, 전국 시대 말기 연(燕)나라의 확장으로 한반도 북서쪽으로 옮겨갔고, 그 후부터 서한시대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자가 주례(周禮)를 우러러 존경했는데, 그가 동경한 동

방예의지국은 바로 기자가 주례로 개화시키던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고조선은 북서쪽에 있는 기자조선 이외에 한반도 중남부에 진국이란 나라도 있었다. 진국은 마한, 진한과 변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지역이나 통치자들의 통치수단의 차이로 인해 민간 풍습에도 지역 차가 있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제 강점기에 침략자들이 수많은 조선 문화재를 도굴, 약탈, 파괴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장’은 일본 침략자들이 문화재 절취를 위해 일부로 꾸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지만, 한국학계에서의 여기에 대한 고증은 아직 미흡하다.

IV. 결 론

중국과 한반도의 기로풍습에 대한 고찰을 살펴보면, 장구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지닌 동북아지역은 기로 풍습에 있어서 탐구할 만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유교나 도교, 불교문화가 전파되면서 기로풍습은 점차 깊은 역사 속에 잠기게 되었고, 현대인들이 더듬어 살펴 알아내야 하고 돌이켜보아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세계풍습 고찰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로풍습은 인류역사상 존재했던 공동적인 역사 현상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단지 형식이나 이 풍습에 부여하던 의미나 종교적인 색채가 다를 뿐이지, 이 풍습의 존재와 소멸은 마침 인류사회 문명의 발전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수많은 기사요의 존재는 이러한 풍습이 광범위하게 민중들에게 실행되었던 장례문화임을 설명하고 있고, 세속적인 권위를 지키는 것이나 무술신앙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스스로 원했든지 강제적이었든지 상관없이 고대의 한수 유역에 살던 사람들이 기사요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생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태연하게 순응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풍습이 그 지역의 특정한 시기의 문명 발달 수준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이른바 ‘고려장’의 존재 여부 문제에 대해 학술적으로 적당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지만, 근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노인 학대와 같은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더 급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민한 (1999). 高麗葬 說話의 虛構性에 關한 研究. **한국사상과 문화**, 5, 103-145.
- 이흥직 (1963). **국사대사전**. 서울: 지문각.
- 조유향 (2011). 고려장 설화의 재음미. **한국노년학연구**, 20, 15-22.
- 宮哲兵 (2007). 野蠻棄老俗의 見証: 武当山寄死窯. **中南民族大学學報**, 27(2), 129-133.
- 潘世東 (2004). 漢水流域寄死窯大文化觀系統闡 析. **鄖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4(5), 27-31.
- 魏彥彥 (2010). **中国特色養老模式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段曉紅 / 중국 및 한국의 기로(棄老) 습속에 관한 고찰: 기사요(寄死窩)와 고려장(高麗葬)을 중심으로

- 刘守华 (2003). 走進 “寄死窩”. *民俗研究*, 2, 123-128.
- 刘守华 (2012). *仙經故事与中国民間故事演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李韶六 (1997). *流动的文明*.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張良皋 (2006). *武当山古建築*. 北京: 中国地图出版社.
- 趙凌煙 (2016). *箕子朝鮮的考古学探索*. 西北大学碩士畢業論文.
- 胡同慶·王義芝 (2014). *盛女敦煌·揭秘中国古代女性生活往事*. 北京: 中国旅遊出版社.
- 時鑒 (1996). *孔孟之鄉名人名勝名產*. 濟南: 山東大学出版社.
- 程群 (2014). *道教生死觀研究*.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 武当山叢書編委会 編 (2016). *中国地理百科* (武当山). 北京/西安: 世界圖書出版公司.
- 黃紹堅·望南·謝罡 (2009). 難以相信中国發現大量棄老遺跡. *中国国家地理*, 9, 50-52.
- Frazer, James G. (2001). *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Herts, United Kingdom: Wordsworth Editions Ltd.
- Xu, Chun Zi, & Soh, Dea Wha (2007). 동굴과 장묘 문화의 고찰. *한국동굴학회지*, 79, 1-6.
- 원고접수일: 2018. 09. 21.
수정원고접수일: 2018. 11. 01.
원고게재승인일: 2018. 11. 15.